천일기도 신심증장 나선 구룡사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100일 1차 회향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 창원 포교당 구룡사에 부처님 자비로 마음을 채우고 참회하며 바른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기도소리가 간절하게 울려 퍼졌다. 구룡사가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구룡사는 기도도량으로 사찰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마음이 진정한 도량이며 자비가 넘치는 참된 도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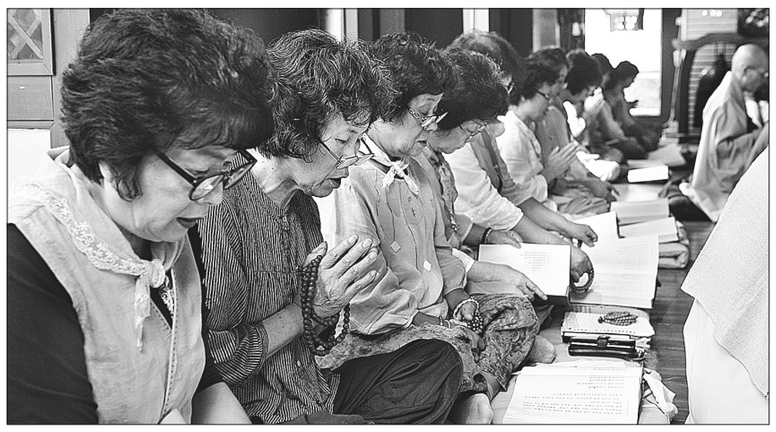
구룡사(주지 무성)는 9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입재 100일 1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첫 100일을 맞은 회향법회서 주지 무성 스님은 기도 동참자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원하고 법문으로 자비도량참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했다. 무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자비도량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자비로운 불자로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무성 스님은 "1차 회향을 맞아 법석을 마련했다. 천일기도가 삶에 영원히 지속되고 자비와 참회가 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자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며 도량은 내 마음 그릇이 참된 도량이다. 진실하게 자비로 마음을 채우고 참회로 맑혀 청정한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구룡사는 지난 5월 28일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입재 후 100일 동안 기도를 이어왔다. 입재 후 100일마다 기도 의지를 굳건히 하며 천일동안 기도를 이어간다

기도 회향 2022년 2월 20일
매일 〈자비도량참법〉 1권 독송
하루에만 3시간 걸리는 수행
"마음 편안해져 주위사람 권해"

는 의지다. 입재 후 10일은 절을 하며 참회하고, 매일 총 10권으로 구성된 경전 〈자비도량참법〉을 한 권씩 독송했으며 100일 동안 총 10번을 읽었다. 〈자비도량참법〉은 내용이 방대해 1권씩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 3시간이 걸려 혼자서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경전이다. 불자들은 주지 무성 스님이 빠지지 않고 직접 기도하며 굳건한 의지로 불자들을 이끌어줘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도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구룡사는 9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입재 100일 1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심혜경 신도회장은 "1000일 동안 자비도량참법 기도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스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고 굳건하게 이끌어줘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수승하게 성장할 불자들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로 삶이 더욱 밝고 행복해진다는 답도 이어졌다. 정진영 불자는 "열정으로 이끌어주는 스님이 덕분에 매일 기도로 하루를 채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더라"며 "기도가 너무 좋아 주위 도반에게 자동으로 권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룡사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회향은 2022년 2월 20일이다. 이때까지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구룡사는 "자비도량참법기도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남의 허물,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허물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순수하며 절절한 기도"라며 "그 공덕을 모든 생명을 위해 회향하며 온 누리가 자비로 가득차고 행복하게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구룡사는 추석을 맞아 자비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9월 5일 설법전 앞에서 개최됐으며 쌀 20kg 100포를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쌀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日지식인들도 아베정부 비판"

日조동종 이치노헤 스님과 군산사암연합회 공동성명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사 부정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국에 대한 부당한 행동에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아베정부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후 이치노헤 스님은 교계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 한일상황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군산 동국사에서 열린 공동성명 발표에는 동국사 종결 스님, 염불사 행담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삼보사 법송 스님, 보천사 의종 스님, 도안사 명현 스님, 이치노헤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 앞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는 한일양국과 아시아 민중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며 "특히


이치노헤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군산사암연합회스님들이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제징용과 성노예 등 전쟁범죄에 희생된 한국인들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개인배상 청구권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치노헤 스님과 군산사암연합회스님들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현실을 부정·왜곡하는 모든 행동과 정책에 반대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대한다 △아베정부는 강제징용과 성노예제 등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의 배상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수정과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아시아 평화협력 촉구 △전쟁과 국가폭력을 반대하며 한국과 일본 아시아에서 평화와 정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적 자비정신으로 교류하고 연대할 것을 밝혔다.

이치노헤 스님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수교협정과 강제징용피해자의 개인배상은 아직 남아있다는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992년 일본 사민당 도이(土井) 의원의 질의에 야나이 일본정부위원이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답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아베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잘못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아베정부는 정상적이지 않다. 권투경기에 비교할 때 링에는 오르지 않고 링 밖에서 한국을 때리고 있다"며 "일본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아베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최근 한일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20대는 한일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3차 한류로 한국의 음식, 음악,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또 "일본사람들이 변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3차 한류문화를 통해 서로 대등하게 대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순 운주사 인근 축사 건립 논란

지역민 반대 커져… 나주시 "허가여부 신중"

천불천탑의 화순 운주사(주지 무안) 인근에 대형 돼지축사 건립이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논란의 돼지축사는 운주사 와불(臥佛)로부터 583m, 대웅전으로부터 약 8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데다 이곳은 나주호 상류지역 수자원보호구역이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일대에 대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현재 허가심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운주사를 비롯한 '나주호 상류 돈사 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주)'는 지역 주민들 200여 명과 함께 지난 8월 30일 나주시청 정문 앞에서 '돈사 신축 불허 집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사진〉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천불천탑 문화재가 대형돈사에서 나오는 분뇨와 악취에 오염될 수 있다. 절대 방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형 돈사는 총 2곳으로 나주시 다도



면 방산리 일대의 1만470㎡와 6,571㎡ 크기의 기업형 시설이다. 문제는 화순과 나주 접경에 위치한 운주사와의 거리가 가깝고, 사찰을 찾는 시민들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찰 수행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담당자는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쉽게 보고 있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주변 환경, 문화재 요소들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21교구 본사인 송광사도 나주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축사 건축 불허가를 요청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 해운정사, 저출산 극복 앞장서

세 자녀 가정 장학금 전달… 10년간 10억 소요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로 진입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밝은 한국을 기원하며 해운정사와 진제선세계화회가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8월 30일 원통보전에서 '세 자녀 가정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해운정사는 2016년부터 중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을 둔 100가정을 선정, 매년 명절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은 총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0년 동안 자녀가 성장할 때 까지 이어진다. 장학금 전달식마다 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법회도 진행 중이다.

종정 진제 스님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큰 일꾼이 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효를 실천하는 인재가 되도록 잘 키우길 바란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인구감소를 극복해 5천년 찬란한 민족 문화를 보존하자"고 대중을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원 성주사, 위기 청소년 돕는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창원 성주사가 위기 청소년을 위해 마음 등불을 밝히는 사찰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찰들을 위한 마음 쉼터로 거듭난다. 창원 성주사(주지 흥교)는 8월 29일 설법전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성주사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에 앞장서고 경찰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성주사는 위기 청소년과 경찰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며, 창원중부경찰서는 성주사 주변 치안강화 및 템플스테이 홍보를 담당한다.

성주사 주지 흥교 스님은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선도활동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내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매미 소리는 아득히 멀어지고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청암의 도량에서
동문 스님들과 소중한 만남을 갖고자 하오니, 잠시나마 자리를 함께 하시어
청암인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 짜 | 불기 2563(2019)년 9월 26일(음 8월 28일) 목요일
시 간 | 오후 3시
장 소 | 청암사 자양전
문 의 | 054)432-2652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